



# 대법원청사

The Supreme Court

설계 / 윤승중+변 용+김석주(건축사사무소 원도시)  
 시공 / 현대건설(주)



<본지 96년 1월호 참조>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대지면적 / 57,793.3㎡  
 건축면적 / 9,765.71㎡  
 연면적 / 66,610.03㎡  
 건폐율 / 16.90%  
 용적률 / 82.65%  
 층수 / 지상16층, 지하2층  
 최고높이 / 81m  
 건축주 / 대법원  
 총감독관 / 건설심의관 김문채  
 구조 / 샌구조 연구소  
 기계설계 / 한일 MEC  
 전기설계 / (주)문유현 전기설계 사무소  
 조경설계 / 한림환경엔지니어링  
 인테리어설계 / (주)아디프  
 건축주 / 대법원  
 사진 / 박영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과 국민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곳이 법원이고 그 최상급 기관이 대법원(Supreme Court)이다. 대법원은 3부 건물의 마지막 청사로 6년을 거쳐 설계 시공 됴므로서, 서초구 일원에 법조타운이 완결되었다.

법원의 형식적, 의미적, 유형적인 대표적 어휘는 Court이다. 즉, 커다란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서 당사자간의 시시비비를 법이라는 도구로 평형시킨다. 현상 당시 대홀이란 Program이 제시되었고, 궁극적인 건축 해결의 중심 개념으로 대홀을 중심으로 대홀=Court라고 설정하였다. 따라서 자연 채광이 도입된 대홀을 중심으로 4개의 정면을 갖고 각 정면에서 각기 다른 기능의 출입구가 된다. 출입구에서 시작된 모든 동선은 결국 대홀에 집중된다. 대법관은 대홀을 거쳐 일종의 의식적 통로로 법정에 이르게 되고 대홀과 대법정 경계벽 상부에는 한국화한 법의 여신이 앉아 있다. 대법정은

불이문 형상의 프레임으로 강조된 법정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그 법정문은 크기에 있어서 상징성을 부여하여 과장되었고 주위벽도 수직성을 위해 원형의 장식과 작은 Niche로 분절된다. 또한, 대홀의 좌우벽은 중력을 무시한 열주랑과 투명한 난간과 투명한 원구의 조명으로 장식된다.

대홀과 대법정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에 중법정 2개가 놓여 있다. 이는 법의 정신으로 또다른 평형을 유지한다.

대법원은 관공서 건물로서 건축적 어휘의 매너리즘적 해석으로 정리하였다. 좌우대칭의 4방향으로 회전 대칭인 기하학적 분할을 이루고, 좌우대칭은 전통 궁궐 배치에서 앞뒤 열주랑 부분을 제거한 배치로 달성된다. 이로서 대칭=(법)의 평형원리를 의미한다. 고층부는 중앙에 놓이므로서 대법원의 수뇌부를 우측은 민원 관련 부서로서 법원 행정처, 서측은 도서관과 후생시설이 배치되었다.